

Queen of Home Accessories

‘고급 호텔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내 집에서도’가 바로 SV Casa의 캐치프레이즈다. 그들의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오리엔탈 무드가 넘실대는 ‘천일야화’ 컬렉션이다.



▲ 디자이너 수산나 발레리오. 홍콩 레인 크로포드에서 14년간 시니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1999년 호텔에 홈 액세서리를 공급하는 'SV International Design'을 설립했다. 디자인 컨설턴트로 일하는 한편 딸과 함께 주얼리 브랜드 'Susanna Valerio'도 운영하고 있다.

▲ SV Casa의 데뷔 컬렉션 'One Thousand and One Nights'의 대표 상품 'Duban Table' 테이블은 2인용으로, 비스포크 방식의 주문도 가능하다. 홍콩 레인 크로포드와 한국 신세계백화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당신이 포시즌이나 하얏트, 샹그릴라 호텔 체인을 사랑한다면, 아마도 수산나 발레리오(Susanna Valerio)가 디자인한 제품들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녀의 클라이언트 리스트는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5성급 이상의 고급 호텔들. 전 세계의 수많은 그랜드 하얏트와 파크 하얏트, 샹그릴라 호텔들을 비롯해 아만폴로와 싱가포르의 소피텔 소, 포시즌 홍콩, 심지어는 보테가 베네타까지 고객의 면면은 가히 압도적이다. 물론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신라호텔 서울과 제주, 파크 하얏트 부산과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그녀가 디자인한 홈 액세서리를 사용 중이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유경험자일 확률이 높다.

그녀가 올해 초 론칭한 라테일 브랜드 'SV Casa'는 '호텔의 물건들을 내 집으로 옮겨오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은 결과다. "사실, 이 브랜드는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호텔에 머물며 우리 제품을 사용했던 고객들이 그 아이템을 집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왜 아니겠는가. 호텔의 어머니가 수도 없이 도난(!)당하는 이유나, 고급 리조트들이 호텔 룸의 액세서리를 아예 샵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모두 같은 맥락 아닌가. 좋은 호텔에 묵을 때마다 그곳에 있는 것과 꼭 같은 의자나 티슈 케이스를 갖고 싶어 사진으로나마 기록해둔 경험이 다들 한번씩은 있지 않은가!

이렇게 고급 호텔들이 사랑하는 그녀의 감각은 대륙을 거침없이 오가며 살아온 그녀의 삶의 여정에서 비롯됐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나고 자라 젊은 시절엔 뉴욕에서 갤러리스트로 일했고, 결혼 이후엔 리우데자네이루로 이주해 이파마의 해변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를 꾸미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이후 그녀의 집은 다시 대륙을 가로질러 이집트의 카이로로 옮겨졌다. '이집트의 만물상'이라 불리는 칸 엘-칼릴리 거리를 오가는 게 그녀가 그곳에 사는 동안 매일같이 빼먹지 않았던 일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콩에 정확히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백화점으로 꼽히는 레인 크로포드의 홈웨어 바이어로 14년간 일했다. 그녀의 비즈니스는 홍콩을 베이스로 꽃피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의 영혼은 7년간 거주했던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그 증거가 바로 'SV Casa'가 선보인 첫 번째 컬렉션, '천일야화(One Thousand and One Nights)'다. 사막을 가로질러 향로와 비단을 날랐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21세기에 현현한다면, 아마 이런 물건을 팔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글썽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물건의 면면은 화려하다. 에메랄드 그린과 와인빛이 도는 레드가 기본 컬러로, 값비싼 자개와 대리석을 아낌없이 사용한데다 볼드한 만화경의 패턴까지. 중동의 6성급 호텔, 혹은 동남아시아의 색시한 시티 호텔에 딱 어울릴 법한 모양새랄까. "점점 품질 좋은 핸드메이드 홈 액세서리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기능을 최우선으로 디자인하고 스토리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요. 대화에서도 주제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말이예요." 그녀의 설명은 과장이 아닌 듯하다. 이번 '천일야화' 컬렉션의 제품 이름은 모두 소설 속 등장인물에서 따왔으니, 테이블의 이름은 소설 속 전지전능한 현자 캐릭터 'Duban'이고, 스톤의 이름은 용감하게 왕과 결혼한 전설의 페르시아 여왕 'Shahrazad', 다이닝 컬렉션의 이름은 지고지순한 여인 캐릭터 'Aziza'다. 이렇게 잘 만든 물건들은 위로와 편안함을 주는 걸 넘어 종종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다주기도 한다. **TR**

editor 박지혜 cooperation SV Casa
(www.SusannaValerioCasa.com)

